

특 집

肝硬變症의 予防과 治療

간경변증은 어떤 원인에 의하여 간의 손상이 장기간 계속된 후 간에 섬유질이 들어가고 재생결절이 형성되는 상태이므로 그 예방은 원인인자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
간경변증의 원인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불확실한 경우도 많다.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만성감염과 알콜을 들 수 있다.

B형 간염 바이러스가 만성 감염을 일으킬 때 간이 정상인 보균자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 활동성 간염을 거쳐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.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10%, 즉 10명중 1명꼴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만성 감염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. 결국 B형 간염을 예방하는 것이 간경변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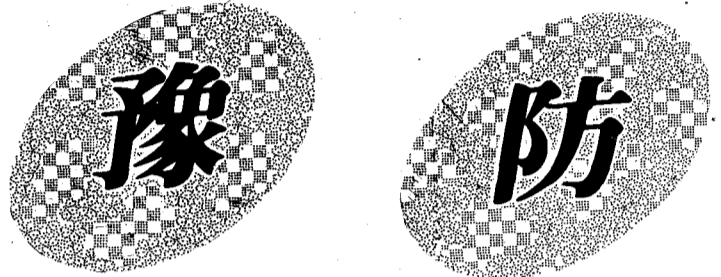
다행히 B형 간염 백신의 개발로 현재 그 적극적인 예방이 가능하다. 우리나라와 같은 유행지역에서는 아직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 백신을 맞아야 할 필요가 있다. 성인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%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B형 간염의 항원과 항체를 검사해 보고 모두 음성인 경우 맞아야 한다. 항원이 양성이면 보균자라는 뜻이고 항체가 양성이면 전에 모르고 %아 면역이 된 상태이므로 맞을 필요가 없다. 집안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있거나 간질환을 %는 사람이 있는 경우 특히 나머지 가족들은 검사를 받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. 산모들은 출산전에 간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. 산모가 항원이 양성이면 아기에게 소위 수직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. 또한 신생아때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생 동안 보균자가 될 가능성이 90% 이상이나 되므로 문제가 된다. 따라서 신생아들에게는 DPT나 소아마비처럼 모두 B형 간염 백신을 투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. 신생아 모두가 백신을 맞아 B형 간염의 항체가 생긴다면 자라는 동안 B형 간염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, 결과적으로 만성 B형 간염도 생기지

않게 되어 간경변증이나 간암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.

B형 간염의 예방은 일반적인 위생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. 즉 바이러스가 혈액이나 몸의 상처를 통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알고 피해야 한다. 우선 손을 잘 씻는 습관이 필요하다. 물은 끓여 먹는 것이 안전하고 주방의 식기도 끓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. 주사기를 비롯한 의료기기는 1회용을 사용하고 한방의 침도 잘 소독해야 한다. 쓸데없는 수혈을

콜에 의한 간손상은 유전적 소인도 관여하며 영양결핍이 있을 때 더 촉진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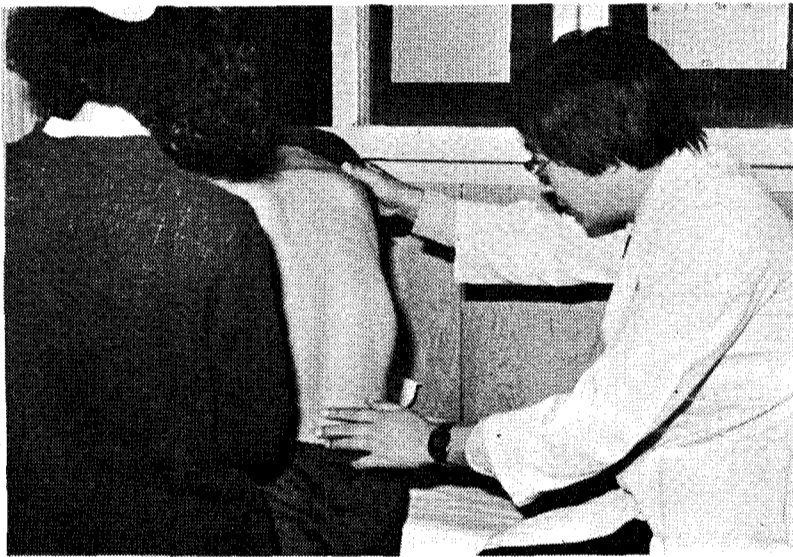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알콜에 의한 간손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.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술을 과음하면 바이러스와 알콜이 협동작용을 하여 간손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. 하루에 20~40gm의 알콜(소주 1홉 또는 맥주 1,000cc 정도)을 수일 정도만 계속 마셔도 지방간이 올 수 있다. 지방간은 며칠 금주하면 정상으로 확보되나 계



우리나라 10명중 1명꼴 B형肝炎 만성感染 藥物등 食品첨가물로 肝損傷 초래할수도

피하고 문신(文身)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. 여러 사람이 돌려 쓸 수 있는 기구들-면도기, 손톱깎기, 칫솔, 이미용기구-등도 잘 소독하거나 1회용을 쓰도록 한다.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 모두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야 보편화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간염 백신을 맞아 저항력을 길러두는 것이 급선무이다.

술도 간경변증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. 술의 성분 즉 알콜은 肝毒이다. 알콜을 마시면 지방간이나 알콜성간염 그리고 간경변증 같은 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. 대량의 술을 매일 장기간 마시는 알콜 중독자들은 10년 후 약 25%에서 간경변증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다. 그러나 단기간내에 폭주를 하는 것도 간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이다. 알



徐 東 震

<高麗醫大 內科부교수>

간독이므로 금해야 한다. 마실수록 간경변증이 진행하기 때문이다. 간경변증을 오래 %다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약 저약 무턱대고 복용하게 되기 쉽다. 이러한 약들은 기능이 저하된 간을 더욱 혹사시켜 쉽게 지치게 만들고 더욱 경변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. 의사의 처방 없이 주위의 소문을 듣고 약을 복용하다가 낭패를 보는 환자들이 비일 비재하다. 감기나 다른 감염이 생기면 빨리 치료하고 복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음식은 짜지 않게 먹는 습관이 필요하다. 또한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고 병 경과를 확인하며 혈청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간종양의 발생 위험성도 조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.

◆우리나라 人口 10명중 1명 꼴인 B형 간염바이러스는 간염을 거쳐 肝硬變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가족중 肝疾患을 앓는 사람이 있을 경우, 나머지 가족도 검사와 백신투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(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관련없음).

머리를 공격하여 효도를 실천하자.

뇌졸중
중풍
반신불수

- 만성 두통
- 지각장애
- 현기증
- 노화증후군
- 연탄가스중독 후유증 (언어장애·수전증·기억력장애)



뇌에 맑은 산소를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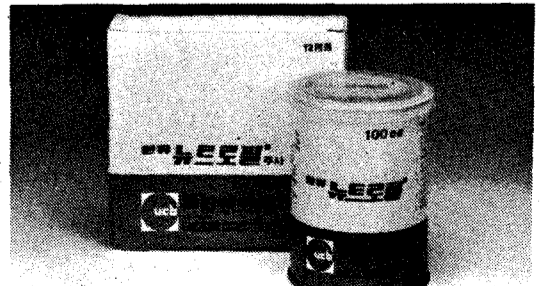
BELGIUM UCB 뇌기능 대사촉진제

뉴트로필

R Nootropil 2.4g/day p.o for 6weeks

5大 藥理作用

1. 물질대사 촉진작용 산소 및 포도당의 이용율을 증가시켜 뇌신경세포의 물질대사 촉진을 시켜 줍니다. (Rouffeul B et al FRANCE)
2. 신경전달 촉진작용 유발 전위에 작용하여 반구정보를 전달합니다. (HERRSCHARFT H et al GERMANY)
3. 혈소관의 과잉 억제작용 혈소관의 활성화를 억제하고, 유착을 방지하여 제증상을 개선하여 줍니다. (Barnhart et al U.S.A)
4. 적혈구 변형 유동력 증가작용 적혈구의 변형성을 증가시켜 말초혈행을 원활하게 하여 줍니다. (SKondia V et al BELGIUM)
5. 저산소시 뇌기능 보호작용 말초혈행을 정상화시켜 다발성 기질증상을 개선시켜 줍니다. (C. Giurgena and Coli, BELGIUM)



포장 주사: 1g 12앰플·정제: 800mg 100정
캡슐: 400mg 100캡슐/15,000원